

광주 8000가구 '스마트 그리드' 4년간 운영

(지능형 전력망)

아파트 7000가구 다양한 전기요금제
1000가구는 태양광 설비 전력 사용
생산·소비 실시간 파악해 효율적 활용



용전마을 들녘서 탈곡 체험 1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전마을 들녘에서 열린 '용전들노래 가을걷이 한마당'에서 시민들이 탈곡 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력 생산과 소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능형 전력망, 일명 '스마트그리드'가 광주와 서울에서 구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그리드 서비스가 구현되는 체험단지를 광주 8000가구와 서울 3000가구 규모로 각각 조성하고 이달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접목해 전기 사용량과 공급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고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생산자는 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소비자는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 전기를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증단지에서는 생활패턴과 빅데이터를 고려한 선택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한다. 휴대전화 요금처럼 각자 전력 소비 방식에 맞춰 다양한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령 소비자 A씨는 전기재판매사자 B가 제공하는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등에 가입한 후 스마트 앱으로 스마트 세탁기를 가동시켜 자신만의 전력사용 패턴을 만들고 전기요금도 절약하는 식이다. 계시별 요금제(TOU·Time Of Use)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로 전기를 적게 쓰는 경우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 가장 많이 쓰는 최대부하 시

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을 공모해 SK텔레콤(광주시), 유니시스(서울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광주에서 SKT 컨소시엄은 '빛(光) 고을(州)에 똑똑한 빛이 그려진다'라는 모토로 우선 아파트 7000가구를 대

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전력수요관리를 포함하는 요금제 등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운영한다. 전력수요관리(DR·Demand Response)는 폭염과 한파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아질 때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수요)을 줄이면 전기를 생산한 것과 동등한 가치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또 500가구씩 2개 단지를 대상으로는 아파트 옥상 등 공용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생산한 전력을 활용하며, 전기가 배터리를 재활용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작해 특정 시점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음식점·상가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연철뉴스

광주 기업들도 공장 이전·신설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받는다
김점기 시의원 발의 개정안 의결

광주지역 기업들도 광주 내에서 공장을 이전·신설·증설할 경우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됐다. 그동안 타지역 기업들만 광주내 공장 이전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었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김점기(남구2·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광주시 소재 기업의 경우 이전·신설·증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에서 공장 등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하고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에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사업장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기존 상시 고용인원의 10% 이상이거나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5년 내에 기존 사업장을 폐쇄·매각·임대·축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 확장 등을 이유로 공장 등을 이전·신설·증설할 경우 광주시로부터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타지로 이전하거나 이전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등기 이후 본격화되면서 하남공단 등에 소재한 기아자동차 부품소재 업체들이 빛그린산업단지로 이전 및 신설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업 경영지원 및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부의장 수행비서' 꼭 필요한가

의장단, 시의원들 반대 불구 강행 비난
광주시도 인력난 호소

광주시의회 의장과 2명의 부의장들이 동료 시의원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부의장 수행비서' 신설을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수행비서 추가 배치에 따른 '갑질 논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부의장 수행비서'를 '전 시의원 수행비서'로 이름을 바꿔 광주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부의장에게 수행비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관용차 요구도 뒤따를 수 있어 광주시도 골머리를 앓고, 민주당 광주시당도 긴급회의를 열고 '시의회 부의장 수행비서, 서구의회, 북구의회, 광산의회 해외 연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의장 수행비서 요구안을 논의했다.

부의장은 장재성(서구1·임미란(남구3) 의원 2명으로, 현재 김동찬 의장에게만 6급 전담 수행비서가 배치돼 있다.

시의회는 앞서 전의원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23명의 전체 의원 중 현재 의장과 부의장

등 3명만 부의장 수행비서 신설에 찬성하고 다른 시의원들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내년부터 부의장(2명)을 7급 상당의 직원이 수행하게 해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전체 의원의 기본적인 수행은 의회사무처 총무과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력을 보충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부의장 수행 비서"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때문에 우선 총무과 인력을 늘린 뒤 이들에게 부의장을 수행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형일자리와 AI 등 신사업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광주시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에 대형 현안을 추진 중인 실·국별별 인력 증원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의회 비서를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총무과에서 수행 업무를 한 명이 맡고 있는데, 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의회를 비롯해 다른 부서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시의회 정례회에 조직개편안을 올릴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실리콘밸리-광주기업 협력체계 구축 앞장

실리콘밸리 방문 성과 공유 23일 설명회

광주시는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 후속조치로 지역 기업과 실리콘밸리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실리콘밸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시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연구소와 벤처캐피탈을 방문해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광주기업과 공유하고, 인공지능 중심 광주를 만드는 혁신의 길을 기업과 함께 가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광주시는 지난 실리콘밸리 방문에 지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8곳의 대표자들과 동행해 현지 투자 발굴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 대상은 지역 스타트업과 대학 산학

협력단, 해외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등이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실리콘밸리 방문의 성과와 내용을 지역기업들과 공유하고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연구소·기업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성공사례를 위한 벤처마케팅 등을 안내한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김문주 박사가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실리콘밸리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광주-실리콘밸리 간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해 지역 기업들에게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이어 해외 투자유치 전문가인 이지윤(쑤저리아나 리엔파트너스 대표)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IR 피칭 전략'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 24~25일 전남도청서 열린다

전남도는 오는 24일부터 2일간 '2019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최신 해상교량 기술을 소개하고, 전남 SOC 완성 원년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전남도청 김대중강당, 왕인실, 운선도홀에서 열리는 '2019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은 국토부 혁신지방자치도관청, 전남도, 목포 등 7개 시·군, 한국도로공사, 대한토목학회와 관련 건설회사 및 설계회사 등이 후원한다.

노르웨이 도로청은 44조7000억원을 투자해 스칸

디나비아 서해안 1100km 구간의 물 속에 플로팅 터널(Floating Tunnel) 등으로 연결하는 'E39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전동차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해상교량의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 창출'을 주제 발표하는 등 해상교량과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다.

전남도는 2019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을 계기로 서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등 전남 SOC 완성의 원년을 선포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http://najuasiang.sarangeuro.co.kr



광주전남혁신도시 B1블럭 이노시티 에시앙 신규일반분양!

호수공원과 16개 공공기관으로 빛나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우리는 사랑으로 삽니다

전세대
발코니 무료
확장

시스템에어컨
(주방, 거실, 각 방 등)
무상제공

중도금
무이자

광주전남혁신도시 B1블럭 이노시티 에시앙 일반분양!

생활 혁신!
중앙호수공원, 나주호 관광단지 등 자연환경 탁월

교통 혁신!
호남고속도로, KTX(송정역, 광주공항 등 광역교통망

교육 혁신!
한전공대(예정) 전남과학고, 전남외고 등 초·중·고 인접

미래 혁신!
16개 공공기관과 과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가치 풍부

061)337-4025
전국 어디서나 1577-5533

광주전남혁신도시B1블럭 · 공급위치: 전남 나주시 빛가람 1번지 · 공급규모: 1만여 · 아파트: 1,478세대, 지하: 13~20층 237동, 총 1,478세대 및 부대시설 · 분양대상: 시·행시지정세대 · 시행일: 2019년 10월 25일(금) 84㎡A/B/C 총 1,478세대